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의식법에 얽매이지 말라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꺾으려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에 대한 법이나 피에 대한 법 등을 가리킨다(레 11장; 17장). 월삭은 초하룻날이며 ‘안식일’이라는 원어(삼바톤, 복수명사)[안식일들(KJV)는 주간의 하루인 ‘제7일 안식일’을 가리킬 수 있으나(눅 4:16; 행 13:14; 16:13 등), 또한 연중 절기들의 안식일들(무교절에 2번, 맥추절 1번, 나팔절 1번, 속죄일 1번, 초막절에 2번 등 연중에 모두 7번)을 가리킬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은 의식법 문제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연약한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거리끼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음식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단지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했다. 또 히브리서는 “이런 것[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며(9:10)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말하였다(10:9).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의식법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이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물론, 인류의 구원과 이 세상의 회복은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의 결과로 확실히 성취될 것이다. 의식법의 내용이 그러하므로 신약 성도들은 이 법들을 지킬 의무 아래 있지 않다.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3). 우리는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짐짓 꾸민 겸손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보지 못한 것들 안으로 들어가(전통본문)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해 말한다. 거짓 교사들은 의식법의 강조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말은 문맥상 자기 몸의 확대 곧 금욕(禁慾)과 고행(苦行)을 가리킨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것들을 헛되이 자랑하고 과장하며 금욕과 고행과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 그러나 이런 교훈을 따르는 것은 ‘상을 빼앗기는 것’ 곧 구원의 상실과 신앙생활의 실패를 뜻한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배척해야 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일이다.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온 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란다. 에베소서 4:15-16,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 거룩하고 선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요 15:5).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는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영적 성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성화는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6-7에서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하였다.

[20-22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儀文)[종교적 규례들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이나 의식법들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종교적 규례들을 강조해 어떤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의문(儀文)에 순종한다’는 말은 [종교적] 규례들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약교회에서 구약의 의식법이나 종교적 규례들을 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교훈은 다 없어질 것이며, 그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自意的, self-made) 숭배와 겸손잡짓 꾸민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사르크스 σάρξ)몸의 죄성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금욕주의는 참된 경건과 성결의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 ‘자의적 숭배’는 자기가 만들어 자기에게 부과한 경배 행위를 가리킨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함’은 금욕적 행위들을 가리킨다. 그런 것들은 그럴 듯한 모양과 말뿐이지, 몸의 죄성 좇는 것을 금하는 데, 즉 참된 성화에 아무런 유익과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성화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에 늘 거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구약의 성막 제도, 제사 제도, 정결 부정결 음식법, 절기들 규례 등 소위 의식법들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비록 그것들에 담긴 도덕적 교훈은 신약시대에도 유효하지만, 의식법 자체는 폐지되었다. 예수께서는 도덕적 의 뿐만 아니라, 의식법들의 예표들을 성취하셨다.

둘째로, 우리는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금욕주의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만지고 안 만지는 등 구약의 의식법들과 인간적 규례들을 강조한다. 이런 강조는 이방 종교들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천주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아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을 경계했다(딤후 4:1-5). 그러나 금

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성화를 이루는 길도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기에 무능하다. 금욕주의는 중세 수도원 같은 곳에서 실천되었으나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종교적 규례를 지키므로써나 금욕주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좇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5:1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13-14, “너희가 육신(몸)의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성령)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內住)하신다. 우리는 무지하고 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시시때때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끝까지 순종케 하신다.

## 주일오후설교 일곱째 나팔과 하늘의 찬송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천사들의 나팔로 말미암은 종말 예언들이 하나씩 계시되는 가운데,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말미암은 종말 예언이 계시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이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16절 이하에는 하늘에 올라간 의인들의 영혼들의 화답하는 고백의 내용이 있다.

세상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주’는 주 하나님을 가리킨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역사이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예언하였다(단 2:4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다(마 4:17). 신약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 의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목표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과 완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표이다.

[16-18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대왕노릇하심이로대.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른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하늘의 큰 소리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 24장로들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한다고 보인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열두 지파와 신약시대의 열두 사도를 대표한다고 보인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재림의 때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재림의 시간을 미리 앞당겨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드러났음을 노래한 것이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17절에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활동하던 사탄과 악령들의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요 내용이다. 18절도 계속 감사의 이유를 말한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통치 내용에 대해 좀더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이방인들이 분노했을 때 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주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은 철저하고 공정한 심판일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는 보상 혹은 멸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24장로들의 감사의 내용과 이유이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 자체를 상징한 듯하다. 요한계시록 21:22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에는 성전이 없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히브리서 9:23-24에는 하늘 성소에 대해 말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성전 혹은 성소는 천국 자체, 특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했다고 본다. 사도 요한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았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을 보았다. 사도 요한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 곧 십계명에 의거한 것임을 보인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위함을 나타낸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14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본다. 시편 90:1-2,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17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자이시다. 창세기 18:14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욥의 욥기 42:2에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나"라고 고백하였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라"라고 고백하였다(렘 32:17).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노릇하실 것이다.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17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시편 99:1-2, "여호와께서 통치하시

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시편 93:1-2,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의인들과 악인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곧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98,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로다. 저가 의(義)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로마서 2:6-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 수요일 설교 **이스라엘의 회복**

[속 10:1-3a]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스기라는 봄비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소낙비와 식물을 주실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했고 거짓된 신비주의자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았고 거짓 꿈을 말했고 헛된 위로, 거짓된 위로를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겼을 때에 길 잃은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였다. 그들은 인도자가 없었고 보호자가 없었으므로 곤고한 일들을 당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악한 목자들에게 노하시며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며, 또 회중 가운데 있는 악한 숫염소들, 곧 순진한 양들을

밀쳤던 악한 교인들도 벌하실 것이다.

[3b-5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眷顧)하여 돌아보애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그들에게로서, 말뚝이 그그들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그들에게로서, 권세 잡은 재(鎧)다스리는 자가 다 일제히 그그들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 . .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의 준마(駿馬)와 같이 강하고 힘있게 하실 것이다. 또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 네 가지 비유는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본다.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의 강림으로 회복되고 힘과 견고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곧 신약교회의 힘과 견고함이 되셨다.

[6-12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실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 . .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봄비 때에 소낙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의 때에 그의 은혜와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비, 곧 소낙비를 구해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된 바이지만, 우리의 간구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헛된 우상숭배를 다 버려야 한다. 세상의 근본적인 죄는 우상숭배이다. 세상은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도 그러했다. 그들은 허탄한 드라빔들, 복술자들의 거짓된 예언들, 거짓된 꿈들 때문에 배교하였고 결국 멸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바른 교훈을 떠난 헛된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하고, 거짓된 목자들과 숫염소들 같은 거짓된 교인들을 조심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의 준마같이 강건케 하실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칼과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그들을 구속(救贖)하실 것이다. 또 그는 그들을 휘파람 불듯이, 호각을 불듯이 부르실 것이며 그들은 온 세계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며 강건케 하실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견고케 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신약교회가 그렇다.